

# 한·몽 언어 문화적 특성 비교 연구

-언어사고 방식을 중심으로-

성비락(Sainbiligt Dashdorj)

## 1. 도입

세계화의 물결이 온 인류를 휩쓸면서 여러 민족과 언어 간에 끊임없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각 문화와 언어간에 크고 작은 충돌이 벌어짐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 의사소통 능력(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 중 한반도와 몽골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人類學, 民族學, 考古學, 言語學, 民俗學, 古生物學 등 다각적인 연구를 통하여 많은 부분이 해명되어 가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언어구조와 사고간의 관련성을 비교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먼저 언어사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화'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며 이 문화는 대대로 전승된 인간의 모든 행위와 관련된다. 아울러 문화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

\* 몽골국립대학교

다. 1) 정신 문화: 세계관, 가치관, 사고 등 2) 행동적 문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닦아 놓는 것 등이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비언어적 문화와 물질 문화(material culture) 즉 어떤 행동의 산물(product)로 보기도 한다 (Salzmann, Zdenek. 1993: 156). NSFLEP(1996)<sup>1)</sup>에 따르면 문화 관습(practices)은 사회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양식이며 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문화 산물(product)은 문화 구성원에 의해 창조된 유형과 무형의 산물들을 일컫는다. 관습과 산물은 문화 관점(perspectives)으로부터 유도되는데, 이는 전통적 사고, 태도, 의미, 가치 등을 일컫는다. 다음 도표는 관습과 산물이 문화 집단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철학적 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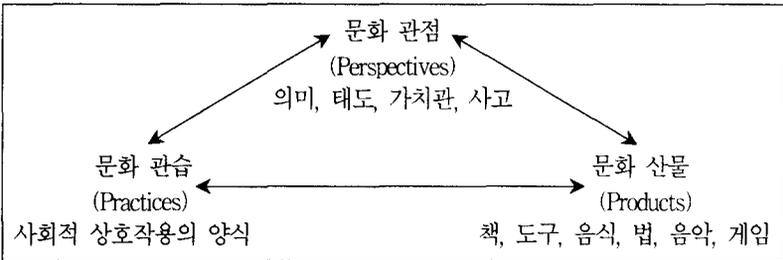


도표 1. 문화 관습과 문화 산물 및 문화 관점간의 상관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본고에서는 정신문화 또는 문화 관점(의미, 태도, 사고, 가치관)과 언어구조간의 상관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양 언어 화자들의 사고와 언어간의 상관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NSFLEP: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1996), National standards for teaching and learning: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Lawrence, KS: Allen Press(Judith I. Shrum, Eileen W. Glisan. Teacher's Handbook: contextualized language instruction에서 재인용).

##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사

현재까지 인간의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이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문화-언어 동일론’이다.<sup>2)</sup> 이는 인간의 문화와 언어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둘째, ‘언어 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 또는 ‘언어 상대성(Linguistic relativity)’이다. 이는 인간의 언어가 문화를 결정한다는 것이다.<sup>3)</sup>

셋째, ‘인지 결정론’이다. 이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화-언어 개별론’이다. 이는 인간의 문화와 언어는 각각 독립적 개체로서 시작하고 각각 다른 계열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인간의 문화와 언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정확한 특성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주로 언어와 문화는 부분적으로 하나이며 유사하나 본질적으로 연계될 수 없다는 (언어 ≠ 문화) 언어인류학자들의 주장<sup>4)</sup>이나 또는 이 둘이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끼친다<sup>5)</sup>는 주장이

2) 독일의 유명한 외교관이자 학자인 Wilhelm von Humboldt(1767-1835)이 일찍이 저술하기를, “인간의 정신(spirit)과 언어 구조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 둘이 하나의 존재로 표현되기도 한다. 언어는 인간의 정신이 확대되어 표출된 것인데, 언어가 곧 인간의 정신이요, 그 정신이 곧 인간의 언어이다. 이 둘이 더 이상 분리되어 정의될 수 없다”고 했다(Salzman, Zdenek, 1993:151).

3) 이는 소위 Sapir-Worf의 가설에서 제시된 것이다. 언어 결정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the way one thinks) 그 언어 화자의 언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며 언어 상대성은 ‘언어간의 차이점은 그 언어 화자들의 여러 세계관에도 반영된다’고 한다(Salzman, Zdenek, 1993:154).

4) Boas과 Sapir의 견해이다. “언어 특질은 다른 종류의 문화 특질들과 비교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매우 늦은 속도로 전파하는 경향을 가지며, 따라서 언어 전파의 예는 다른 문화 전파의 예보다 비교적 드물게 나타난다.” (왕한석, 1996:15).

5) 노대규(2002), 성기철(2003)에서 이런 견해가 보인다. 가령, 성기철(2003:1)에서는, “한

우위적이다.

한국인의 사고 유형과 한국어의 언어 구조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사고 방식이 한국어의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가, 또는 한국어의 구조가 한국인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끼치는가, 아니면, 그 둘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실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윤태립(1964), 최재석(1965), 이규호(1968), 박창해(1968), 권순희(1996), 김영기(1997), 노대규(2002)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윤태립(1964)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성격으로서, “(1) 지나친 감수성, (2) 과거에의 집착, (3) 권위주의, (4) 체면, (5) 공리” 등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재석(1965)에서는 사회학적 견지에서 본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으로, “(1) 가족주의, (2) 관료의 권위주의(감투지향적 의식), (3) 신분계층질서(身分階層秩序)의 존중, (4) 파벌(派閥)의 형성, (5) 공동체로부터의 개인의 미분화(未分化)” 등의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규호(1968)에서는 언어 철학적 입장에서 한국어의 논리에 대하여, “(1) 술어 중심 현상의 논리, (2) 화자, 청자 및 상황의 상관논리, (3) 우회적 추리 논리, (4) 구체적 삶의 논리” 등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했다. 박창해(1968)에서는 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의 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사고 유형을, “(1) 상관적 주관성, (2) 첨가적 우회형, (3) 정서적 다양형, (4) 구조적 긍정형 및 부정형, (5) 조건적 시제형, (6) 지속적 시상형, (7) 부정적 사고형” 등 일곱 가지로 분류하였다. 권순희(1996)에서는 한국어의 언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 및 교재 편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성들을 언급하였다. “(1) 농업위주의 문화 형성: 모, 벼, 쌀, 밥 등 어휘 발달, (2) 의식주 중에서 ‘의’를 앞세워서 표현함: 영어의 ‘wear’

---

국어의 대우 현상이 한국의 사회 문화 소산이지만, 그 결과물인 대우 현상이 역으로 우리의 사회,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라고 했다.

에 해당하는 한국어 어휘의 발달, (3) 대가족 제도,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 호칭어 발달, (4) 형용사의 발달: 색채어 발달, (5) 숫자 관념의 희박: 서너 개, 대여섯 개” 등을 제시하였으며 문법상의 대표적 예로, 주어 생략 및 피동 표현의 미발달을 제시하여 이것을 개체를 중시하는 미국문화와 우리라는 집단 의식이 중시되는 한국문화의 차이로 강조하였다. 김영기(1997)에서는 보편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즉, (1) 상징어(큰 말 작은 말), 모음조화, 한글의 특성 등은 우주를 이중적인 시야(음양)에서 보는 지식과 관련이 있다 (2)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나 ‘-겠-’의 실현 방식이 한국인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경어법: 반말과 ‘-어요’ 형을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민주화되어 가는 사회 가치관이 달라졌다 (4) 한국문화가 직설적인 것보다는 여운을 아름답게 본다. 마치 문장이 중간에 끊긴 듯한 예가 허다하다(점심이나 하실까요? 전화라도 주세요, 안 계신데요, 숙제를 하기는 했지만 등). 위 연구들은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언어 구조의 상관관계를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했다.

노대규(2002)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서 한국인의 사고와 언어의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가령, “(1) 정서적 사고 방식: 감각어(특히 색채어), 상징어(곧, 의성어와 의태어), 음소 교체어, 감탄법 의미 발달 (2) 주관적 사고 방식: ‘예’와 ‘아니오’의 응답의 형식, 수(곧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거의 없다는 사실, 피동문보다 능동문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 자유 어순 (3) 상관적 사고 방식: 한국어 생략 현상, 서법이나 시제와 같은 중요한 정보가 문장의 맨 뒤에 나타나는 용언의 어간에 첨가, 존대어와 비존대어의 분류, 부가어 사용 (4) 배타적 사고 방식: 순수한 한국어로 된 삼인칭 정칭 대명사가 없고, 화자와 청자의 대화에 있어서 이해 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는 대화에서 자연히 배제되며, 문장 성분의 생략이 자유롭고, 대우법의 등급 체계가 존재함 (5) 권위주의

적 사고 방식: 한국어의 대우법의 발달과 다양한 사동법과 같은 문법 구조나 문법적 특성이 이것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몽골인의 사고 방식과 언어 구조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단, Batmunkh(1991)의 ‘Muuxai monvol hún’에서 몽골인들의 성격 특성을 구체적으로 다루긴 했으나 언어구조와 관련시키지는 않았다. 몽골의 전통 문화나 생활 방식(유목민 생활 방식) 또는 언어 구조를 기술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현대 몽골인들의 사고 방식과 언어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본다.

### 3. 한국어와 몽골어의 언어 · 사고 특성 비교

#### 3.1. 정서적 사고 방식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몽골인들도 감정이 많고, 정이 많은 민족이다. 이 두 민족은 마음 속에 일어나는 기쁨, 노여움, 슬픔, 두려움, 쾌감, 불쾌감 따위를 숨기지 못하여 그대로 표출하거나 얼굴에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인과 몽골인들의 얼굴만 봐도 기분을 대충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정서적 사고 방식이 언어로 표현될 때 약간의 차이가 난다. 즉, 한국어가 감각어(그 중에서 색채어), 상징어(의성 의태어), 음소 교체어, 지소어, 감탄법이 발달되어 있다(노대규, 2002)는 점에서 몽골어와 비슷하나 표현 방식과 문법 특성을 비교할 때 몽골어와 차이를 보인다. 지금부터 양언어의 색채어와 상징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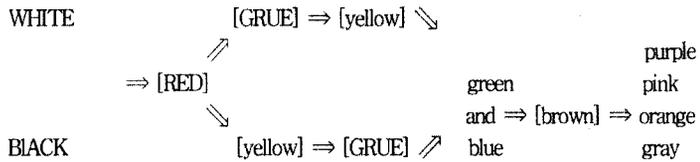
3.1.1. 색채어

감각어 중에서 양 언어 색채어 표현 방식을 비교해 보면 기본 색채어가 다섯 가지로 매우 같고, 문법적 특징도 유사했으나 한국어의 색채어 뒤에 붙이는 접사가 몽골어보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었다. 가령, 신현숙·김영란(2003)에 따르면 한국어의 기본 색채어가 {희다 [白] / 검다 [黑] / 노랗다 [黃] / 빨갳다 [紅] / 푸르다 [靑]}이며 빈도도 이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몽골어의 기본 색채어가 역시 {xar 검다 / tsaxaan 희다 / hóh 푸르다 / šar 노랗다 / ulaan 빨갳다}의 다섯 가지인데 그 상징적 순서는 약간 다르고, 몽골어의 푸른색과 녹색의 뜻 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Dulam, S. 2000).<sup>6)</sup>

6) Berlin과 Kay(1969)는 98개의 서로 다른 개별 언어에서 추출한 기초 색채 어휘의 비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 모든 개별 언어에서 부호화되는 기초 색채 어휘는 11개의 보편적인 지각 범주로부터 도출된다.

둘째, 개별 언어들 간에 기초 색채 어휘가 부호화되는 데는 일정한 분포적 제약이 존재하는데, 이 분포적 제약은 다시 개별 언어에서의 기초 색채 어휘가 부호화되는 시차적 순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이 순서는 Kay(1975)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된다). 즉,



셋째, 작은 수의 기초 색채 어휘는 비교적 단순한 문화, 단순한 기술과 관련되고 많은 수의 색채 어휘는 복잡적 문화, 복잡적 기술과 관련되는 경향을 가지므로, 색채 어휘가 부호화되는 시차적 순서는 곧 진화적 순서인 것으로 파악된다(황인석, 1996:23-24 재인용).

여기서 양언어 ‘검다’의 형태적 유형을 비교해 보면 형태 구조 유형은 비슷하나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된다.

1. 색채어휘는 한국어 문법 체계에서 ‘형용사’ 분류에 들어갔지만 몽골어 문법에서는 ‘관형사’로 본다.
2. 한국어의 색채형용사 앞의 접사가 붙여 쓰이지만 몽골어는 해당한 의미를 갖는 요소를 ‘수식사’<sup>7)</sup>로 보며 띄어 쓰고 있다.
3. 한국어가 색채형용사 뒤에 오는 접사가 몽골어보다 많다. 가령,

한국어:

- 1) 접사 + 색채형용사 ⇒ 새까맣다, 시꺼멓다.
- 2) 색채형용사 + 접사 ⇒ 검다, 거멓다, 거무레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죽죽하다, 가무퇴퇴하다, 거무테테하다, 거무턱턱하다, 가무대대하다, 거무트름하다, 거무스름하다, 거무고름하다, 거머무트름하다, 거무반드르하다, 거머멀쭉하다, 거무잡잡하다, 거무칙칙하다, 까무총총하다, 까무총총하다.

몽골어:

- 1) 수식사 + 색채관형사 ⇒ тас хар[*tas har*], пад хар[*pad har*], хав хар[*xav har*], цул хар[*cul har*], битүү хар[*bitúú har*], нил хар[*nil har*], бөөн хар[*bóón har*].

색채관형사 + 접사 ⇒ хар[*har*], харавтар[*xaravtar*], хардуу[*xarduu*],

---

7) 이것은 현대 몽골어에서 “*uytan čimeh úg*”이라고 한다. 바로 제한된 명사 앞에 오며 수식하는 관형사의 기능, 또는 동사 앞에 쓰여 부사의 기능을 하는 비생산적 어휘소들이다. 현대 몽골어에 접두 파생법이 없다고 보지만 위 수식사들은 한국어의 접두사와 같은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харавтардуу[xaravtarduū], хардуухан[xarduuxan], харавтархан[xaravtarxan],  
 харавтардуухан[xaravtarduuxan], хархан[xarxan], халтар[xaltar], халтардуу  
 [xaltarduū].

### 3.1.2 상징어

한국어가 상징어 즉,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로 간주된다. 한국어는 약 4000여 개의 상징어가 있는데 그 중 1500여 개는 활용도가 높은 상징어이다. 몽골어는 2637여개의 흥내내는 말이 있다고 보고 있다 (Sainbiligt, D. 1999:34). 한국어의 경우 “의성어 의태어”의 상징적 특성을 고려해서 “상징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만 몽골어는 “흥내내는 말”이라는 개념 속에 몽골어의 의성어 의태어의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양 언어 화자들이 사물의 음성과 모양을 흉내낼 때 의성어와 의태어 또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말과 글을 좀 더 흥미롭고 실감 있게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신체의 움직임이 많이 이입되는 서양 문화와 대조적인 현상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몽골 사람들의 대화 주제로 꽃이나 여행 소감보다는 사람의 생김새나 몸짓 자세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우리말갈래사전”에서 추출한 생김새와 몸짓 자세와 관련된 의태어들이다.

한국어:

1. 가칠가칠(거칠거칠)
2. 길쭉길쭉(갈쭉갈쭉)
3. 굵슬굵슬(굵슬굵슬)
4. 갈끔갈끔
5. 나뭇나뭇
6. 날씬날씬(늘씬늘씬)

몽골어 번역:

- ширүүн, барзгар  
 гонзгой, зууван  
 буржгар, долгиотой  
 цэмцийсэн  
 намбалзах  
 нарийхан нарийхан

7. 납작납작	навтга навтга
8. 넓적넓적	палпигар
9. 둥글둥글	дугуй дугуй
10. 동실동실	тонтойсон
11. 말뚱말뚱(말뚱말뚱)	мэлийсэн, гөлийсэн
12. 몽실몽실(몽실몽실)	мантгар
13. 미끈미끈	мөлгөр, мөлчийсөн
14. 바짝바짝	түнтийн (таргалах), чөрийн (турах)
15. 반드르르(반드르르)	малийсан, тос даасан
16. 반듯하다	өөгүй, цэвэрхэн
17. 보동보동	бондого бондого
18. 빼빼	чөрийсөн
19. 산뜻하다	шалмаг, цовоо
20. 살살	сэм сэм
21. 상큼상큼(성큼성큼)	соорго соорго (алхах)
22. 오동통	бултгар, бондгор
23. 우락부락	өрвийж сөрвийсөн
24. 울근불근	жалир жалир: хэрзийсэн,
25. 초롱초롱	гал цогтой, нүд нь гялалзсан
26. 통통	түнтийн
27. 훌쭉훌쭉	ёнхойсон
28. 휘하다	аятайхан, нүдэнд дулаахан
29. 희끗희끗	(үсэнд) цал суух
30. 희번드르르(희번지르르)	булцгар цагаан

아울러 한국어와 몽골어의 흉내내는 말 연구에서 음의 상징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음의 상징적 의미 해석에 있어 동양의 음양오설(陰陽五行)을 도입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sup>8)</sup>

### 3.1.3. 완곡 어법과 금기어

인간의 사상, 정서 및 덕성들은 언어 표현을 통하여 표출된다. 사회 관습적 원인이나 신앙적, 속신적 원인 등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는 어떠한 특수한 언어와 표현을 피하고, 그에 해당하는 다른 어떤 특정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완곡 어법과 금기어(taboo)라 한다. 다시 말해, 완곡 어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수치 감정이나 불쾌 감정이나, 또는 공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단어나 표현의 사용을 피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야기시키지 않는 간접적이고 시사적인 완곡한 단어나 표현으로 바꾸어 나타내는 화법이다(노대규, 2002: 1010). 완곡 어법을 만드는 습관은 적어도 1066년 영국의 노르만 정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영어 공동체는 우아한 어휘와 외설스런 어휘, 상류계층의 라틴어 단어와 하류계층의 생생한 앵글로색슨어의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Farb, P. 1997: 93).

이런 완곡어법에서 각 민족의 언어 문화적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보아 한국인과 몽골인들의 완곡어법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았다. 몽골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몽골인들의 종교심이나 세계관을 반영한 다음과 같은 완곡어법이 있다.

1. 공포와 위엄의 대상을 직접 말하기를 꺼려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늑대나 어떤 전염병에 대한 완곡 표현이 가장 많다. 늑대는 몽골인들의 주 생활 수단인 가축을 헤치는 짐승으로서 공포와 위엄의 대상<sup>8)</sup>이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늑대를 각 지방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한다.

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Sainbiligt.D(1999) 참조.

9) 늑대는 위엄과 힘의 상징도 되는데, 이것은 몽골인들의 기원을 늑대와 암사슴에서 나왔다고 하는 몽골비사(蒙古秘史)의 기원설과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чоно[čono]: хөдөөний нохой[hóóóonii noxoi], хээрийн нохой[heeriin noxoi], хангайн нохой[xanɣain noxoi], боохой[booxoi].<sup>10)</sup>

**할호 지방에서:** саарал нохой[saaral noxoi-Óvórxanɣai aimav], гайхал [ɣaixal-Arxanɣai aimav], бөөн цагаан[bóón cayaan-Hóvsgól aimav], сунадаг саарал[sunadaɣ saaral-Darhad 族], борхүү[borgúú-ɣovialtai aimav], хэцүү нэрт[hécúú nert-Dundɣovi aimav], их амт[ih amt- Zavxan aimav], годон малгайт[ɣodon malɣait-Bulɣan aimav], мөлхөө саарал[mólhóó saaral-Domoxovi aimav], хөнхөр[hónhór-Dornod aimav], тэнгэрийн нохой [tengeriin noxoi-Hentü aimav], хонжигдой[xonɣivdoi-Ubs aimav].

**오르두스 지방에서:** хөх нохой[hóh noxoi], хээрийн юм[heeriin yum], цуут авгай[cuut avɣai], хээрийн авгай[heeriin avɣai], Дарам авгай[daram avɣai], муу ёрт[muu yort], модон сүүлт[modon súúlt], шар нүдэт[šar núdet], гөнж толгойт[gónj tolvoit], жаргар сүүлт[jarɣar súúlt], хамуут[xamuut].

**보리아트 지방에서:** тэнгэрийн нохой[tengeriin noxoi], урт сүүлт[urt súúlt], гонзгой сүүлт[ɣonzɣoi súúlt], ноосон толгойт[nooson tolvoit], арзгар шүдэт[arɣar šúdet], хүйтэн шинжит[húiten šinjit], хаахалтай[xaaxaltai], боохолдой[booxoldoi].<sup>11)</sup>

위에서 보면 늑대의 완곡 표현은 그의 생김새나 털빛, 이빨과 주둥이, 머리카 꼬리, 몸짓이나 사는 곳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연장자나 친척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기피하여 친근감이나 경의를 표하는 뜻으로 본 이름 외에 호칭어를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g.ugalgh cv[avɣailax yos-호칭법#이라고 한다. 즉 이러한 이름 완곡 금기법이 호칭어 체계에서 연구되기도 하며 완곡 어법으로 연구되기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10) 발음 우측의 표기는 수집된 지역 또는 부족명을 적은 것이다.

11) Tórnórceren.J(1974:42) 참조.

амбаа[ambaa], ажай[ajai], агаа[avaa], жаажаа[jaajaa], аазай[aazai], дэдээ[dedee], баавай[baavai], буужай[buujai]<sup>12)</sup> 등이다.

3. 인간의 공포심과 신앙적 원인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나 표현을 기피하여 다른 표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죽음과 죽은 사람에 대한 표현들이다. 몽골어에서는 '죽다'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완곡 표현이 있다. 예를 들면,

үхэх[úheh]- нас барах[nas barax], нас нөхцөх[nas nóhcóh], талийгаач болох[taliivaac bolox], амьсгал хураах[am'syal xuraax], таалал болох[taalal bolox], таалал төгсөх[taalal tógsoh], өнгөрөх[óngóróh], нас эцэслэх[nas ecesleh], бие барах[bive barax], нүд аних[núd anix], үгүй болох[ugui bolox], бурхан болох[burxan bolox], салж одох[salj odox], халиах[xaliax], бүрлээч болох[búrleeč bolox], мажийх[majiiх], зөв эс болох[zón es bolox], тэнгэр болох[tenger bolox], нярваан болох[nyarvaan bolox], жанч халах[janč xalax], шарил тайлах[šaril tailah], амь хураах[am' xuraax], амьсгал тасрах[am'syal tasrax], үүд далдлах[úúd daldax], нас болох[nas bolox], насны тоо гүйцэх[nasní too güiceh], өөд болох[óód bolox], төрөл арилжих[tórol ariljix], хад түших[xad túših], хадан гэртээ очих[xadan gertee oçix], орчлонгоос тэвчих[orčlonгоос tevčih], нөгөө ертөнцөд очих[nógóó yertóncód oçix], диваажинд очих[divaajind oçix].

한국어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돌아가다, 눈을 감다, 고택골로 가다, 골로 가다, 길게 눕다, 눈에 흙이 들어가다, 눈자위가 꺼지다, 세상을 뜨다, 손톱 흙이 들어가다, 숨을 거두다, 요단강을 건너가다, 잠이 들다, 천당에 가다, 하늘나라로 가다, 황천길

12) Javvaral. R(1976: 78)에서는 이런 호칭을 어린이의 말에서 생겼다고 보기도 한다.

로 가다, 별세하시다, 운명하시다, 논두렁을 베다, 숨이 끊기다, 숨지다, 사  
갓밥을 걸머지다, 수구문차레, 명을 달리 하시다, 저승에 가다, 저승에 보  
내다, 저 세상으로 가시다.<sup>13)</sup> 속어로는 물고가 나다, 밥숟가락을 놓다, 지  
옥에 가다 등이 있다.

양언어 ‘죽음’에 관한 완곡 표현을 비교해 보면 서로 맞아떨어지는 표  
현도 있는가 하면 문화 차이로 인해 뜻이 상이한 표현도 있다.

1) 뜻이 같거나 비슷한 표현

눈을 감다 ⇒ нүд аних[núd anix]

세상을 뜨다 ⇒ өөд болох[óód bolox]

저승에 가다 ⇒ нөгөө ертөнцөд очих[nógóó yertóncód očix]

숨을 거두다 ⇒ амьсгал хураах[am'syal xuraax]

숨이 끊기다 ⇒ амьсгал тасрах[am'syal tasrax]

2) 뜻이 다른 표현

몽골어에는 насны тоо гүйцэх[nasnī too gúiceh], төрөл арилжих[tórol  
ariljix], нярваан болох[nyarvaan bolox] 등 불교적인 신념에서 전래된  
표현들이 많은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다, 천당에 가  
다 등 기독교적인 표현들과 황천길로 가다, 수구문차레, 별세하시다,  
운명하시다 등 한자어들이 눈에 띈다.

### 3.1.4. 마무리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과 몽골인들의 정서적 사고 방식과 관련해서  
(1) 감각어, 그 중에서 색채어 (2) 상징어, 그 중에서 의태어 (3) 완곡 어법  
및 금기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어느 한 언어가 정서적  
표현들이 더 발달되었다고 하기보다 정서적 사고 방식이 각 언어에서 어

13) 박영준, 최경봉(2002), 관용어 사전 참조.

떠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거기에 어떠한 언어문화적 특성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양 언어 색채어 비교에서 기본 색채어가 다섯 가지로 유사했고, 상징어에서는 사람과 사물의 생김새나 움직임 생생하게 표현하는 여러 의태어들이 많았으며, 완곡 어법과 금기어에서 각 민족의 언어문화적 요소가 깊이 숨어있는 표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심화해서 언어자료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다양하게 발굴해 내야 보다 더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3.2. 집단적 사고 방식

어떻게 보면 집단적 사고 방식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부터 인간의 머리 속에 형성되어 온 고유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집단적 사고 방식이 각 민족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본다. 한국과 몽골 사람들이 이 점에서 비슷한 성격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양국의 가족주의나 권위주의(서열의식)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가족주의 및 이와 관련된 언어사고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여 권위주의 언어사고 방식을 논외로 하였다.<sup>14)</sup>

첫째, 한국과 몽골의 가족주의<sup>15)</sup>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

14) 권위주의는 주관적 사고 방식과 상관적 사고 방식과 연관될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이 한국어와 몽골어의 피동·사동법 그리고 문장 성분의 생략, 존대어 체계 등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나 본고에서 그 연구는 논외로 하였다.

15) 최재석(1966)에서는 한국의 가족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1. 사회의 구성단위는 집(家)이며
2. 이 집은 어떠한 사회집단보다 중시되며
3. 개인은 이 집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4. 집안의 인간관계도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하의 신분의 서열(序列)에 의하며 이루어지며
5. 이와 같은 인간은 비단 가족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족외의 외부사회에까지

된다.

1. 대가족제도가 강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대가족제도가 파괴되고 있으나 양국에서는 한집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2. 족보(族譜)나 한 가문의 혈통이 중시된다.<sup>16)</sup>
3.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4. 시댁과 며느리 간의 관계 또는 아이들을 키우고 훈계하는 방식이 비슷하다.<sup>17)</sup>

차이점으로는 한국어 장자(長子)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있는 반면에 몽골은 末子 제도가 있다.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집단적 사고 방식은 양 언어 호칭어와 대명사 그리고 친척 어휘, 존대어에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친척어휘나 존대어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고 한국어와 몽골어의 호칭어와 대명사의 언어사고 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 3.2.1. 호칭어

박영순(2001)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호칭어를 비교하면서 한국어 호칭법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

확대(擴大)되는 사회의 조직형태(組織形態)를 가족주의라 부르거나 한다.

- 16) 몽골에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인해 한동안 이런 전통이 흐려졌지만 그 사고 방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거나 1990년 이후 많은 전통 방식들이 다시 빛을 보기 시작했다.
- 17) 한 집 구성원들의 관계가 비교적으로 한국에서 더 엄하고 굳게 지켜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Bor. B, Nyamaa. B(1996), Namjil. T[2001], Ar'yasiuren. Č[2000]를 참조

① **친척호칭의 은유적인 용법(MKT)과 어린이 중심의 호칭(Tek)<sup>18)</sup>이 있다.** 한국 사람은 가족 없는 개인이란 거의 생각할 수가 없고, 자기개인을 개인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가정을 한 단위로 보고 자기는 그것이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구조와 전통이 그대로 호칭에도 나타나 영어에서는 개인을 개인으로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TLN이나 FN만이 호칭을 가졌다면 한국어에서는 성인의 경우 FN으로 부르지 않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한 개인으로만 볼 때는 거의 없고 사회에서의 지위나 가족 속의 일원으로 보고 그에 맞는 호칭 즉 LTN나, MKT나 Tek를 쓴다는 것이다.

② **같은 유형의 호칭이라고 해도 존경도에 따라 선택하는 호칭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우선 사회적인 지위로 부를 것이냐 가정적인 위치로 부를 것이냐를 결정한 뒤 다시 얼마나 높일 것이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임의적이 아니고 엄격한 사회언어학적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이 규칙은 화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성별, 출신지역, 교육 정도, 말이 행해지는 때와 장소 등 여러 요인과 화자와 청자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③ **한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연령에 민감하다.**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또 얼마나 많으나, 적으나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이것을 언어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불과 한 시간 차이로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라도 몇 일, 몇 달간의 차이가 있는 사촌형제끼리도 언니와 동생이 결정되어 동생은 “언니”, “오빠”로 부르고 형은 FN-으로 부르는가 하면

18) MKT(Metaphorical Use of Kinship Term)은 상대방이 실제로 자기의 친척이 아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형님, 누님 등과 같은 모든 친척호칭으로 부르는 호칭법이다.

Tek(Teknonymy)라는 것은 상대방을 그 집안의 어린이 이름+아버님, 어머니님 같은 친척호칭을 덧붙여서 부르는 호칭법, 즉 어린이 중심 호칭법을 말한다. “칠수엄마, 칠수형님” 같은 호칭이 그 예다.

같은 classmate끼리도 한두 살 위라는 이유 때문에 “형”이라고 불러주는 현 한국대학생들의 호칭은 한국 사람이 얼마나 연령 감각에 민감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언어예절은 미국인들의 언어예절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④ **호칭 사용의 변화.** 전체적으로 보아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더 평준화되어 비권위적으로 되고 존칭이 약화되었으나 지난 10여 년 간을 통하여 일부 성인사회에서는 다시 존칭을 강화하는, 권위적인 호칭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가령, 운전자→기사, 간호부→간호원, 차장→안내양, 선생님→교수님, 부인→영부인 등) 20대 젊은층 사이에서는 남녀 구별 없이 서로를 “자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나고 같은 동급생끼리 남녀 구별 없이 나이 많은 학생보고 “형”이라고 부르는 등, 호칭의 평등화 민주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괴리현상은 모두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한다고 하겠다(박영순, 2001:272-277).

상술한 한국어의 호칭법의 특성을 몽골어와 대조해 보면 유사점 보다 차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몽골 사람이 먼저 인사하고 나서 자기 이름<sup>19)</sup>부터 말한다.** 그 다음에 어디 사람(고향이나 소속)이고 뭐 하는지를 소개한다.<sup>20)</sup> 이름은 *Büten ner*(Full name)과 *Tovčilson ner*(Half name)이 있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친

- 
- 19) 본 이름 앞에 아버지 이름이 오지만 그것은 일반 대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 서류상 또는 공식적인 자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에 해당하는 “ovox”이 있지만 이것도 서류나 특정한 상황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Yónsóóbúú ovogt Byambin Rinčin*라고 있으면 성은 *Yónsóóbúú*이고, 아버지 이름은 *Byambin*이며, 본인 이름이 *Rinčin*이다.  
20) 그러나 꼭 이런 순서를 지킨다고 할 수 없다. 옷어른이 이름이나 소속, 직위를 물어 보기 전에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소개를 받기 전에 본인이 직접 자기를 소개하고 인사한다는 것이 무척 어색한 일이다.

근감을 확보하고 싶으면 바로 Half name을 부르게 된다. 몽골인들의 Full name은 일반적으로 2-4 음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자 스스로<sup>21)</sup> 부르기 편한대로 Half name를 정한다. 예를 들면,

Bat(FN) ⇒ Bataa, Bagii(HN)

Tómór(FN) ⇒ Tómróó, Tóógii(HN)

Čuluunceceg(FN) ⇒ Čuluunaa, Čuka, Cetgee, Ceegii(HN)

Oyumbiligt(FN) ⇒ Oyunaa, Oyuka, Oočka, Biligtee, Bilgee(HN)

이런 호칭의 차이로 인해 한국과 몽골인 화자간의 의사전달에 있어 혼동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 즉, 한국인 화자들이 성으로 부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데 비해 몽골인 화자들은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서로 불쾌한 감정을 안기기 쉽다. 가령, 한국인 화자가 몽골 사람의 이름 앞에 있는 아버지 이름을 성(性)으로 생각하여 불러보지만 몽골 사람은 자기를 부르는 줄 모르고 응답을 안 한다든가, 몽골인 화자가 조금 친해졌다 싶어서 한국 사람의 이름을 부르다가 대화가 어색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문화를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몽골어의 호칭법이나 몽골인들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그 호칭법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몽골어의 호칭법으로는 영어식의 First name 중심의 문화와 한국식의 친척호칭의 은유적인 용법이 공존한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가령, 친척호칭의 은유적 용법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Ax aa!(형, 오빠) Egč ee!(언니, 누나)”라든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

21) 화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어려서부터 가족 내에서 부르던 이름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는 “Minii dúú!(내 동생아!), “Minii húú!(내 아들이! 애야!)” 등 표현, 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사용하는 “Naizaa!(친구야!), “Óóróó(자기야)” 등 표현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린이 중심의 호칭법이 “manai húúgiin aab(우리 애 아빠가, 한국어: ‘애비’), “ohinii maan’ eej(딸의 엄마는, 한국어: ‘애미’)” 식으로 3인칭 용법으로 사용되거나 한국어와 같이 2인칭 대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어머니, 영희는 어디 갔어요? (친구 어머니에게)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민재 엄마! (남편이 아내에게)

② 연령에 있어서 몽골인들은 한국 사람만큼 민감하지가 않다. 오히려 사회적 지위만 제외하고는 서로 1-3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또래로 취급하여 2인칭 낮춤의 “*ci*(너)”를 사용한다.<sup>22)</sup>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무난하지만 성인들의 연령을 물러볼 때는 성급히 할 수 없다는 것이 현 문화이다. 최근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 여선생을 만났더니 한국인들의 나이와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질렸다고 호소하였다. 앞으로 두 문화권 사람들이 교류할 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자료가 정립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22) 그러나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2인칭 낮춤의 대명사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예절이 그리 보편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가령, 부부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manai geniin hún(우리 집 사람)”, “avvai(아내), ehner(부인)”라고 말하거나 아내는 남편에게 “ta(당신)”과 같은 높임의 인칭대명사를 썼다(Ar'yastüren, Č. Nyambuu. H, 1991:240). 하지만 이것이 사회주의 건설 시대에 평등적 사상을 주장함에 따라 서양식 언어 예절 문화가 더 확산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회주의 때 몽골어의 높임 체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3.2.2 대명사

먼저 양언어의 대명사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국어: <표 1> 한국어의 인칭대명사 종류<sup>23)</sup>

순서	인칭 대명사	높임 정도	몇 수	용례
ㄱ	1인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나, 짐(朕), 본인(本人)
			복수	우리
		하대칭	단수	저, 소생(小生), (小人), 소자(小子), 과인(寡人)
			복수	저희
ㄴ	2인칭 대명사	하대칭, 평대칭	단수	너, 당신
			복수	너희, 당신들, 당신네
		존대칭	단수	그대, 댁(宅), 귀형(貴兄), 귀하(貴下), 노형(老兄), 선생, 자네
			복수	여러분
		극존대칭	단수	어른, 어르신, 선생님
			복수	
ㄷ	3인칭 대명사	하대칭	단수	이자, 그자, 저자, 애, 개, 재, 이애, 그애, 저애
			복수	
		평대칭	단수	그, 저, 누구, 아무, 자기, 자신, 저, 제
			복수	이들, 그들, 저들, 저희
		존대칭	단수	이이, 그이, 저이
			복수	
		극존대칭	단수	이분, 그분, 저분, 당신
			복수	
ㄹ	미지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누구
			복수	
ㅁ	부정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누구, 아무
			복수	

23) <표 1>에 있는 인칭 대명사 목록은 이관규(1999)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ㄴ	재귀 대명사	평대칭	단수	자기, 자신, 저, 제
			복수	저희
		극존대칭	단수	당신
			복수	당신들, 당신네

<표 2> 한국어의 비인칭 대명사 종류<sup>24)</sup>

순서	비인칭 대명사	용례
ㄱ	사물 대명사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무엇, 어느것; 아무것; 자체
ㄴ	공간 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이곳, 그곳, 저곳; 어디, 어느곳; 아무데, 아무곳
ㄷ	시간 대명사	입때, 집때; 언제, 어느때; 아무때

몽골어: <표 3> 몽골어의 인칭 대명사 종류

순서	인칭 대명사	높임의 정도 및 수	용례	
a	1인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bi (mi-, na-) <sup>25)</sup>
			복수	*ba <sup>26)</sup> , bid, manai, manaix(an) <sup>27)</sup>
b	2인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či (ča-) <sup>28)</sup>
			복수	ta nar, tanai, tanaix(an)
		존대칭	단수	ta (tan-, tan'-) <sup>29)</sup>
			복수	
c	3인칭 대명사	평대칭	단수	*i (inu), ene (hún), ter (hún) <sup>30)</sup>
			복수	*a (anu), ed (nar), ted (nar)

24) <표 2>는 이관규 (1999)를 따름.

25) 몽골어의 1인칭 대명사 단수형 'bi'는 'bi-, mi-, na-'의 3가지 변이형 어간(語幹)을 갖고 있다. 즉 'bi-'형 어간은 파생접사 ∅와 복수 접미사 '-d' 앞에 오는 어간형태이며 'mi-'형은 파생접사 '-n' 앞에, 'na-' 형은 파생접사 '-d', '-m' 앞에 오는 어간 형태들이다. 여기서 'bi-, mi-, na-'의 4가지 어근(語根)이 파생되는 셈이다. 그리고 'bi-' 어근 뒤에 주격조사 ∅ 형태가, 'mi-' 어근 뒤에 소유격조사, 'na-' 어근 뒤에 처소격과 출격, 도구격, 공동격, 방향격조사가, 'nam-' 뒤에 목적격조사가 붙여지게 된다.

Poppe, Nicholas(1965)에 의하면, Ramstedt가 몽골어의 1인칭 대명사의 변이형

Zaax tólóonii úg(지시대명사): ene, ter, edgeer, tedgeer; iim, tiim; ód, tód;

'na-' 형태와 한국어의 1인칭 대명사 '나'의 관련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The pronoun of the 1st p. has one more stem, namely, nama(root 'na') which appears in the dative-locative, ablative, accusative, and instrumental. The root 'na' was compared by Ramstedt with the Korean pronoun of the 1st p. sing. na "I". (Poppe, N. 1965:194).

- 26) \*ba는 중세 몽골어 문헌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1인칭 복수형이다. Hitoshi Kuribayash(2002: 147)에서는 '몽골비사(蒙古秘史)'에 나타난 몽골어와 중국어의 인칭대명사 대응관계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몽골어 배제식 복수의 사격(斜格)형이 아주 드문 것을 고려하면, 배제식과 포괄식(ba와 bida)의 차이가 없어지고 포괄식으로 융합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 27) 이것은 고대몽골어 1인칭 복수형 \*ba'의 소유격 형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단어가 다음과 같이 격변화를 한다.

	고대몽골어 (단수)	현대몽골어 (단수)	고대몽골어 (복수)	현대몽골어 (복수)	현대몽골어 복수 (배제식)	현대몽골어 복수 (포괄식)
주격:	bi	bi	*ba	bid		
속격:	min-u	minii	man-u	bidnii	manai	manaixan
처격:	na-da na-dur	nadaid	man-a man-tur	bidend	manaid	manaixand
목적격:	nama-yi	namaig	man-i	bidniig	manaixiγ	manaixniγ
탈격:	na-dača	nadaas	man-ača	bidnees	manaixaas	manaixnaas
조격:	na-ar	nadaar	man-ar	bidneer	manaixaar	manaixnaar
공동격:	nama-luva	nadtai	man-tai	bidentei	manaixtai	manaxantai
방향격:	nad-ruvu	nad ruu	man-ruvu	biden rú	manaix ru	manaixan ru

- 28) 이인칭 대명사의 단수형 'či'는 'či-'와 'ča-'의 두 가지 어간과 'či-', 'čin-', 'čam-'의 세 가지 어근 변이형을 가진다.
- 29) 고대 몽골어에서는 'ta'가 이인칭 복수의 뜻을 가리키다가 현대몽골어에서 이인칭 존대칭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ta'가 하나의 어간 뜻과 'tan-'과 'tan-'의 두 개의 어근 변이형을 가진다.
- 30) 현대 몽골어는 3인칭 단수나 복수형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 형태가 따로 없고, 이(사람), 그(사람), 이들 그들 등의 지시대명사가 대신 사용된다. 고대 몽골어에 3인칭 단수와 복수의 뜻을 가진 \*i(inu)와 'a(anu)'가 존재했었으나 언어 변화 과정을 통해 그 원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3인칭 복수의 소유격 형태인 '-inu/-anu'가 지금의 'hamaatuulax nóhcól(재귀 소유격 조사)'로 변했다(Ónórbayan, 1998:215).

end tend; iiš tiiš, inge, teg; ónóó, mónóó; nógóó, ug, tus, el, saix' ...

Asuux tólóónii úg(의문대명사): hen, yu, al', yamar, her, hed, hičneen, hezee, hediid, xaana, xaaš(aa), xaaγuur, ya, herh ...

Todorxoigúi tólóónii úg(부정칭): hen č, yu č, al' č, yamar č, hed č, hičneen č, hezee č, hediid č, xaana č, xaašaa č, xaaγuur č, yax č, herheh č, hen neg, al' neg, yamar neg, hezee neg, xaa neg, alivaa, yamarvaa...

Yalvax tólóónii úg(분류 대명사): búh, cóm, niit, xamag, búgd, xotol, dayan(dayar), bult, xamt, cug, óór, busad, zarim, nógóó...

Óóriin tólóónii úg(재귀 대명사): 단수의 óóróó, 복수의 óórsdóó가 그것이다.

다음은 한국어와 몽골어의 대명사의 특징적인 현상들을 살펴봄으로써 양언어 대명사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 본 것이다.

### 유사점

1) 양언어에 3인칭 대명사가 고유한 형태가 없고 지시관형사와 (의존)명사 또는 복수 접미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몽골어	한국어
단수 ⇒ ene(hún), ter(hún)	단수 ⇒ 이(사람), 그(사람), 저(사람)
복수 ⇒ ed, ted	복수 ⇒ 이들, 그들, 저들

2) 1인칭과 2인칭의 '우리, 너희'와 같은 복수형이 한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 양상이 양언어에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차이점

1) 한국어에 '이, 그, 저'와 같은 '근칭, 중칭, 원칭'의 3분 대립이 있으나

몽골어에는 ‘ene ter, iim tiim’ 등의 2분 대립이 있다.

2) 한국어의 대명사가 높임의 정도로 세분화되지만 몽골어는 2인칭 대명사의 ‘ci’와 ‘ta’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3) 몽골어의 인칭대명사가 보통 몇 가지 어간이나 어근 변이형을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어가 주격형 외에 그런 변이형이 없다. 가령, 1인칭 대명사의 격변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대 몽골어	현대 한국어
주격:	bi	나(내가)
속격:	minii	나의(내)
처격:	nadad	나에게
목적격:	namaig	나를
탈격:	nadaas	나에게서
조격:	nadaar	나로(하여금)
공동격:	nadtai	나와
방향격:	nad ruu	나한테?

여기서 양언어 유사점 (2)에서 언급한 1, 2인칭 대명사 복수형 ‘우리, 너희’의 특별한 쓰임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즉, ‘우리, 너희’의 표현 방식이 한국인과 몽골인들의 집단적 사고 방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언어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어의 1, 2인칭 대명사 복수형 ‘우리, 너희’**

백봉자(1999: 43)에서는 “1인칭에서 소유격으로 쓸 때는 ‘나’나 ‘저’ 대신 ‘우리’를 많이 쓴다. 이것은 한국 사람의 의식 속에는 ‘나’라고 하는 개인을 주장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소속 집단을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

기 때문이다. ‘우리’ 다음에는 소유격 조사 ‘-의’를 잘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이익섭·채완(1999: 148~150)에서는 ‘우리, 너희’의 몇 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 1) 한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 이들 복수 대명사가 쓰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들이 있다.
  - 우리 아버지, 우리 누나,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 ✓
  - 우리 아내, 너희 마누라, 너희 아내 X
  - 내 아들, 네 아들, 자네 아들 ✓
  - 너희 아들 X
  - 너희 아버지, 너희 누나, 자네 아버지, 당신 누님 ✓
  - 네 아버지, 네 누나 X
- 2) ‘집, 동네, 본(밭), 학교, 나라와 같이 일반적으로 한 개인의 소유로 보는 한 가족이나 어떤 구성원의 공동 소유로 인식되는 것들 앞에서는 더구나 ‘우리, 너희’ 등의 복수 대명사가 쓰인다.
- 3) ‘우리, 저희, 너희’는 복수 표시의 ‘-들’을 다시 첨가하여 ‘우리들, 저희들, 너희들’로도 쓰인다.
- 4) 1인칭의 ‘우리’는 ‘나’와는 달리 화자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에는 화자 이외에 때로는 청자, 때로는 제3자가 포함되며, 때로는 청자와 제3자가 모두 포함되는 수가 있다. 같은 1인칭 복수형이더라도 ‘저희’는 청자를 포함하여 일컬을 수 없다. ‘저희’는 상대방을 높이고 화자 및 그 同類를 낮춘 표현이므로 존대될 청자를 이에 포함시키는 일이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 ○ 몽골어의 1인칭 대명사 복수형 ‘bid, manai, manaix(an)’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몽골어의 1인칭 대명사 복수형으로 ‘bid, manai’가 있는데, ‘manai’는 고대몽골어의 ‘\*ba’의 속격형에서 유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Ónórbayan, 1998: 214). 거기다가 ‘manai’에다 ‘+xan’이 붙여 짐으로 한국어의 ‘우리네’와 같이 범위를 더 좁히는 뜻의 1인칭 대명사 복수형이 파생된다. 이 대명사들이 아래와 같은 분포를 가진다.

몽골어 1인칭 대명사 복수형	한국어 번역
manai uls	우리 나라
manai aav⇒minii aav	우리 아버지⇒내 아버지
manai bair⇒minii bair	우리 집⇒내 집
manai ангиinxan	우리 반(학생들)
manai surxуul’	우리 학교
manai naiz⇒minii naiz	우리 친구⇒내 친구
manai udam	우리 가계(家系)
manai zasgiin yazar	우리 정부
manai hún	우리 집사람
manai tal	우리 편
manai xajuud	우리 (집)옆에
manai darva	우리 사장님
manai nutag⇒minii nutag	우리 고향⇒내 고향
manai dúú⇒minii dúú	우리 동생⇒내 동생
manai egč⇒minii egč	우리 누나⇒내 누나
manai soyolin	우리 문화의

- (1) Manaix yanc gereeree zusdag bailaa (Auyaa úndesten, N: 26).  
우리(집)는 집 한 채로(혼자) 여름을 지내곤 했었다.
- (2) Manaihaar emčlúúleed yarsan húmúusees...(Erúúl mend sonin, N: 19)  
우리네(병원)를 통해 치료받고 나간 사람들이...
- (3) Manaixan Borjivon ovog avsan(Auyaa úndesten, N: 25).  
우리네(집)는 보르지강 성(性)을 가졌다.

‘manai’는 한국어와 같이 한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예 (1), (2), (3)에 있는 ‘manaix’이나 ‘manaixan’은 뒤의 ‘병원’, ‘집’ 등 명사를 생략한 ‘우리네’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 때 ‘manaix’과 ‘manaixan’이 약간의 뜻 차이를 보이는데, ‘manaix’이 단수의 뜻이 강한데 비해 ‘manaixan’이 제 3자를 포함한 복수의 뜻을 나타낸다.

또 몽골어의 1인칭 복수형 ‘bid’이 주로 주어로 쓰이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manai’가 관형사의 기능으로 쓰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bid’과 ‘manai’가 번갈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의 사회언어학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한국어와 몽골어의 1인칭 대명사의 복수형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양 민족의 집단적 의식이 반영된다고 생각한다.

몽골어의 2인칭 복수의 ‘ta nar, tanai, tanaix(an)’이 1인칭 대명사의 복수형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으로 따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 3.2.3. 마무리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집단적 사고 방식은 양 언어 화자들의 호칭어와 대명사 체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호칭법에서는 한국어와 몽골어의 친척호칭의 은유적인 용법(MKT)과 어린이 중심의 호칭(Tek)이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즉, 몽골인들이 이름을 중심으로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한국인들이 성을 중심으로 호칭하는 경향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몽골어의 호칭법으로는 영어식의 First name 중심의 문화와 한국식의 친척호칭의 은유적인 용법이 공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령, 친척호칭의 은유적 용법 가운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Ax aa!(형, 오빠) Egč ee!(언니, 누나)”라든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Minii dúu!(내 동생아)”, “Minii húu!(내

아들아! 애야!) 등 표현, 또는 나이가 비슷한 사람끼리 사용하는 “Naizaa! (친구야)”, “Óoróó(자기야)” 등의 표현이 있다.

둘째, 몽골어는 어린 중심의 호칭이 제 3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어린 중심 호칭어가 청자에게 쓸 수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몽골어: “manai húúgiin aab(우리 애 아빠가, 한국어: ‘에비’), “ohini maan’eej(딸의 엄마는, 한국어: ‘에미’)”

한국어: 어머니, 영희는 어디 갔어요? (친구 어머니에게)

아버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민재 엄마! (남편이 아내에게)

셋째, 몽골인들은 한국사람만큼 연령에 민감하지 않다. 이것이 현대 몽골인들이 사회적 지위만 제외하고는 한두 살 차이를 무시하고 또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또 몽골어의 존대법 체계가 한국어만큼 복잡하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한다.

아울러 양언어의 대명사 체계를 비교하여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밝혀 두었다. 한국어의 1인칭 대명사의 복수형 “우리”와 몽골어의 “bid, manai, manaix(an)”이 한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특징에 있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이에 대해서 ‘대명사’ 부분에서 참조).

결론으로 양어 화자들의 정서적 사고 방식과 집단적 사고 방식이 해당 언어 표현을 통해서 표출될 때 언어 표현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일반적으로 비슷한 언어 체계와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권재일(2002), 한국어와 몽골어의 문법 구조 대조,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ume 3,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 김방한(1986), 언어 변화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한글 제 194호.
- 김숙자(1986),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인칭 대명사에 대하여, 한글 제 194호.
- 김형동·이강현 편저(1997), 언어문화, 학문사.
- 김민수·고영근·이익섭·심재기(1984), 국어와 민족문화, 집문당.
- 나카가와 아키오(2003), 한국어 문화 어휘에 대한 일고찰, 中國韓國(朝鮮)語教育研究學會定期學術大會 論文集.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대규(2002), 한국어의 화용의미론, 국학자료원.
- 민현식(1997),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제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박동근(2000), '웃음 표현 흉내말의 의미 기술, 한글 247호.
- 박영순(2001), 한국인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 박창해(1968), 한국인의 사고 유형과 대학 교양 교육의 과제, 대학과 국가 발전, 박대선 편, 서울: 교육 출판사.
- 박환영(2002), 몽어유해에 나타난 친족어휘 연구, 제5차 알타이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알타이학회.
- 배해수(1986), 성격 그림씨에 대한 고찰-〈침착성〉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제194호.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신현숙·김영란(2003), 색채어 어휘 정보와 교수 모형, 國韓國(朝鮮)語教育研究學會定期學術大會 論文集.
- 유범(1997), 영어 원어민에게 부정적 느낌을 주는 한국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연구: 북미권 영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사회언어학* 제5권 2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왕한석(1996), 언어·사회·문화 -언어 인류학의 주요 조류-, *사회언어학* 4(1).

- 윤태림(1964), 한국인의 성격, 서울: 현대 교육총서 출판사.
- 이관규(1999), 학교 문법론, 월인.
- 이규호(1968), 말의 힘, 서울: 제일 출판사.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복(2002), 국어 경어법과 사회언어학, 월인.
- 장석진(1986), 조응의 담화 기능: 재귀 표현을 중심으로, 한글 제194호.
- 장장식(2002), 몽골민속기행, 자우출판사.
- 조항록(2003), 한국어 문화 교육론의 주요 쟁점과 과제, 한국어교육 (1), 서울대 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 최동권(1999), Solonyos ba Monvol helmii úgsiig aimavlah tuxai asuudald, 몽골학 제8호, 한국몽골학회.
- 최재석(1965), 韓國人の 社會的 性格 - 주로 言語生活의 分析에 依한 接近-, 서울: 民潮社.
- 한국어학회(1999), 국어의 격과 조사, 小石 성광수 교수 화갑기념논총, 창조문화사.
- Ar'yasüren. Č, Nyambu. H(1990), Monvol yos zanshin bava tailbar tol', Ulaanbaatar: Ulsin hevleliin úldver.
- Ar'yasüren. Č, Nyambu. H(1991), Monvol yos zanshin dund tailbar tol', Ulaanbaatar: Súúlenhúú húúhdiin hevleliin yazar.
- Ar'yasüren. Č(2000), Monvol yos zanshin ih tailbar tol', Urtax erdem hevleliin y azar.
- Badamdorj. D(2001), Monvol helmii utvasudlal, tergúun devter, Mónhiin úseg hevleliin kompani.
- Badamdorj. D(2001), Monvol helmii utvasudlal, ded devter, Mónhiin úseg hevleliin kompani.
- Badamdorj. D(2001), Monvol helmii utvasudlal, rutvaar devter, Mónhiin úseg hevleliin kompani.
- Bat-Ireedúi. J, Ar'yasüren. Č(1999), Monvol yos zanshin ih tailbar tol',

Admonhevelelin yazar.

Batmónh(1991), Muuxai monyol hún. Armiin hevelelin yazar.

Battulva. Č(1998), Moyol hel monyol yos, Ulaanbaatar: MNU hevelelin товчоо.

Bor. B, Nyamaa. B(1996), Survan хүмүүжүүлэх зүйн зарим асуудал, Ulaanbaatar: MNU hevleh үлдвэр.

Bolvillain, Nancy(2002), Language Culture and Communication, Prentice Hall (한국사회언어학회 엮음, 2002, 문화와 의사소통의 사회언어학, 한국문화사).

Búgd Nairamdax Monyol Ard Ulsin Šinjleh Uxaani Akademi(1966), Orčin cagiin monyol helni zúi, Ulsin hevelelin hereg erhleh xoroо.

Dorjdayva. T, Sarantuya. N, Dolvorsüren. J(1998), Soyol sudlalin úndes, Ulaanbaatar.

Dulam. S(1999), Monyol belgedel zúi, tergúun devter: Tooni belgedel zúi, Ulaanbaatar: Admon hevelelin yazar.

Dulam. S(2000), Monyol belgedel zúi, ded devter: Óngónii belgedel zúi Zúg čigiin belgedel zui, Ulaanbaatar: MNU hevelelin товчоо.

Dulam. S(2001), Monyol belgedel zúi, yuvaar devter: Dúrsiin belgedel zúi Doxio zanyaanii belgedel zúi, Ulaanbaatar: hevelelin Toonoprint kompani.

Dulam. S(2002), Monyol belgedel zúi, dótgóor devter: Zúud zón sovingiin belgedelzúi, Ulaanbaatar: MNU hevelelin товчоо.

Javvaral. R(1976), Monyol helni хүндэтгелин уг, Ардын боловсролин Yamni hevel.

Monyolin Šinjleh Uxaani Akademiin Túuhiin Húreelen(1986), Búgd Nairamdax Monyol Ard Ulsin soyolin túuh: (1941-1960) ded bot', Ulaanbaatar: Ulsin hevelelin yazar.

Namjil. T(2001), Monyol Solonyos ger búlin zan zanshin ulamjlabiy xar'cuulan sudlax n', 몽골학 제11호, 한국몽골학회.

Otronsüren. D(1979), Yariani nairuulva soyol, Ulaanbaatar: Ulsin hevelelin yazar.

Ónórbayan. C(1998), Orčin cagiin monyol helni úgzui, Ulaanbaatar: Ulsin Bayšiin Ih suryул'.

- Farb, Peter(이기동·김혜숙·김혜숙 옮김 1997), *말 그 모습과 쓰임: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문화사.
- Hickerson, Nancy Parrott(1980), *Linguistic Anthropology*, Orlando: Harcourt College.
- Sainbiligt. D(1999),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흉내내는 말 비교연구*, 몽골국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alzmann, Zdenek(1993), *Language Culture & Society: An Introduct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Westview Press.
- Sampildendev. H(1985), *Malčín arđın zan úiliin ulamjal*, Ulaanbaatar: Ulsin hevlelin vazar.
- Silver, Sherley(1997), *American Indian Languages: cultural and social contexts*,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Tucson.
- Poppe, Nicholas(1965), *Introduction to Altaic Linguistics*, Otto Harrassowitz · Wiesbaden.
- Pürevjav. E(1993), *Monvol hel yariani soyolin zarim asuudal, ded doktorin zoxoil*.
- Pürevsüren. C(2001), *Umvazúin onolin úúdnées mongol helnii eyerúlliig avč úzeh n'*, *Monvol hel šinjlel Tom VI(XXVIII)*, *Monvolin Šinjlel Uxaani Akademiin Hel zoxiolin Húreelen*.
- Tómórceren. J(1974), *Monvol helnii úgiin sangiin sudlal, Arđın bolovsrolin Yamni hevlel*.
- Hitoshi Kuribayashi(2002), *Mongolian and Chinese personal pronouns in 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제 5차 알타이학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한국알타이학회.

## 참고 자료

- 김민수 감수(1990), *새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박용수(1993), *우리말갈래사전*, 한길사.
- 박영준·최경봉(2002), *관용어 사전*, 태학사.

교육 인적 자원부(2002), 고등 학교 문법 <교사용 지도서>, 두산.

교육 인적 자원부(2002), 고등 학교 문법, 두산.

Ceval. Ya(1966), Monʹvol helnii tovč tailbar toli, Ulsin hevleliin úldver.

Auʹyaa úndesten sonin, 2003년 N: 25.

Auʹyaa úndesten sonin, 2003년 N: 26.

Erúúl mend sonin, 2003년 N: 19.